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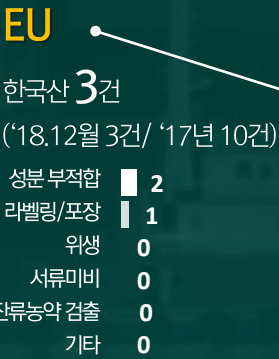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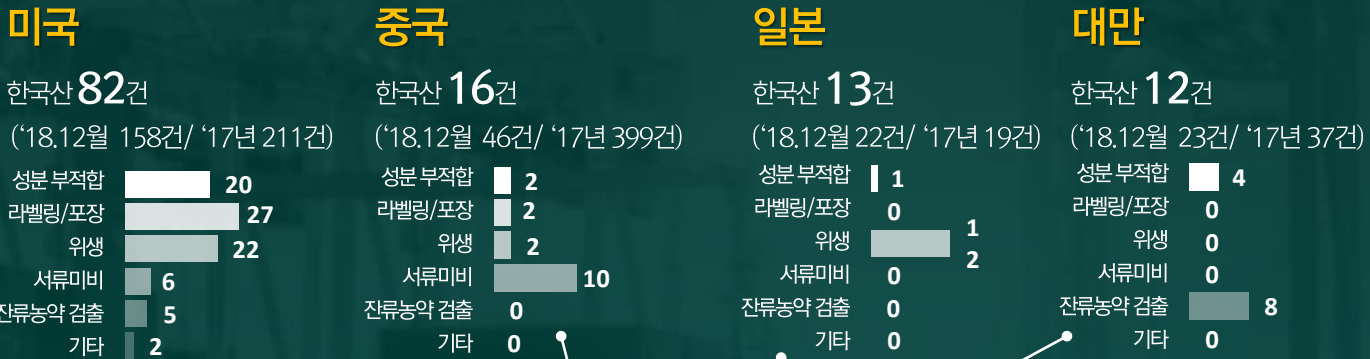
2018년 하반기

농식품 통관거부 및 식품안전사례 동향분석

- I.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 1. '18년 하반기 통관거부 동향
 - 2. '17년 하반기 통관거부 동향
 - 3. 하반기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 분석
 -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1.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18년 하반기 통관거부 동향



호주

한국산 0건
('18.12월 3건/ '17년 6건)

러시아

한국산 0건
('18.12월 0건/ '17년 1건)

캐나다

한국산 0건
('18.12월 0건/ '17년 0건)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주요 제품별 현황

어류 / 총 30건



미국 27건 일본 2건
중국 1건

과자류 / 총 24건



미국 21건 일본 1건
중국 2건

기타조제 농산품 / 총 16건



미국 7건 일본 2건
중국 7건

채소류 / 총 11건



대만 8건 미국 2건
EU 1건

음료 / 총 8건



미국 7건 일본 1건

연체동물 / 총 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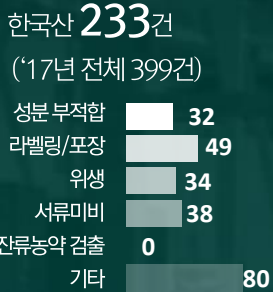
미국 1건 일본 4건
중국 1건

캐나다 통관거부사례는 2018년 3분기(7~9월)까지 업데이트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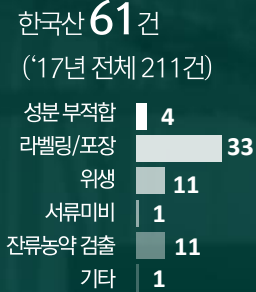
1.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2. '17년 하반기 통관거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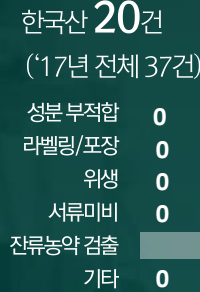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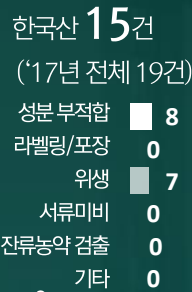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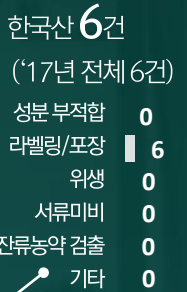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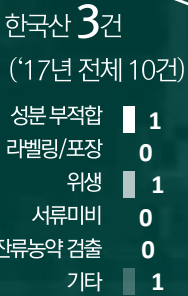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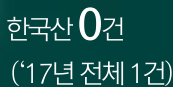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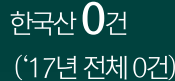
EU



러시아



캐나다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주요 제품별 현황

과자류 / 총 70건



중국 65건 미국 4건
일본 1건

기타 조제 농산품 / 총 58건



중국 44건 미국 14건

해조류 / 총 32건



중국 31건 대만 1건

채소류 / 총 26건



대만 15건 미국 8건
중국 2건 일본 1건

어류 / 총 22건



미국 14건 EU 1건
중국 2건 일본 5건

과실류 / 총 21건



중국 20건 일본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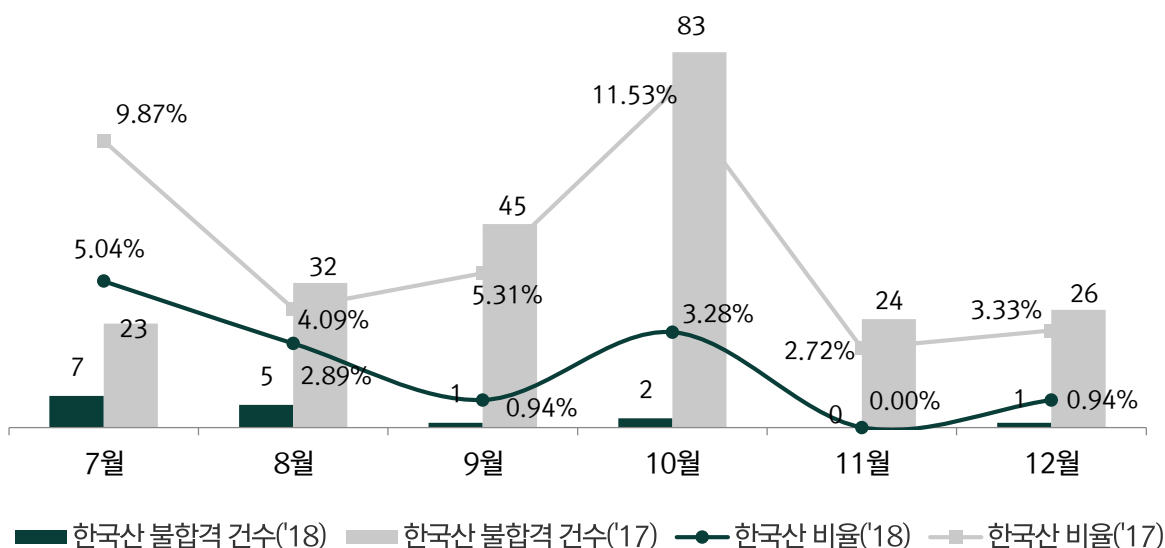
2018. 2H Food Import Refusal Analysis by Country

3. 하반기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 분석

3.1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 분석 - 중국

3.1.1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단위: 건, %)



(단위: 건, %)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전체 불합격 건수			
	연도		증감률(B/A)		연도		증감률(B/A)	
	'17년(A)	'18년(B)	건수	비율(%)	'17년(A)	'18년(B)	건수	비율(%)
7월	23	7	▼16	30.4	233	139	▼94	59.7
8월	32	5	▼27	15.6	783	173	▼610	22.1
9월	45	1	▼44	2.2	847	106	▼741	12.5
10월	83	2	▼81	2.4	720	61	▼659	8.5
11월	24	0	▼24	-	881	75	▼806	8.5
12월	26	1	▼25	3.8	780	106	▼674	13.6
합계	233	16	▼217	6.9	4,244	660	▼3,584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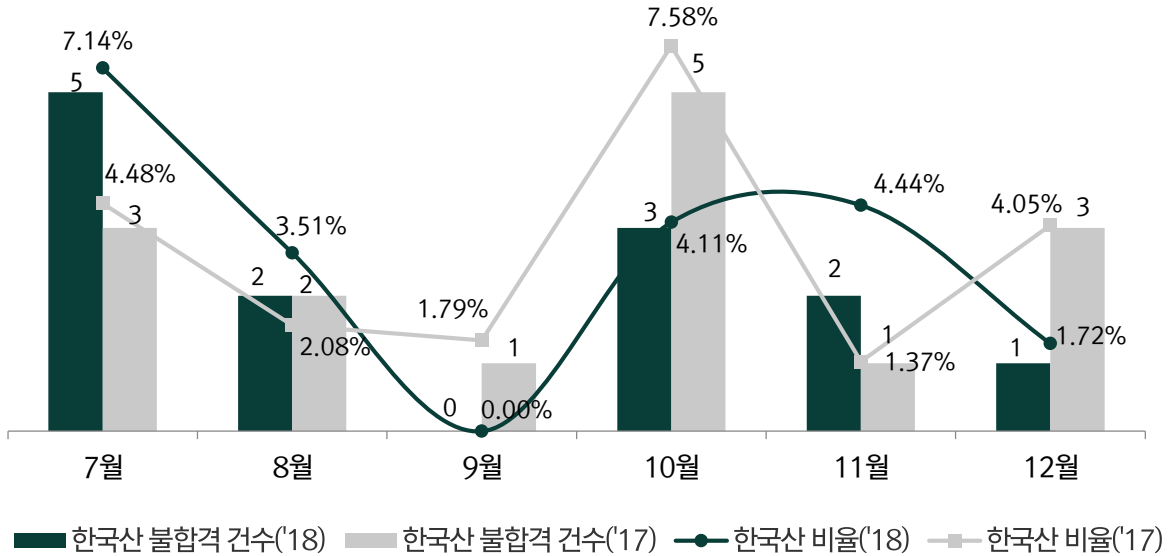
출처: 중국 해관총서

3.2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 분석 - 일본



3.2.1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단위: 건, %)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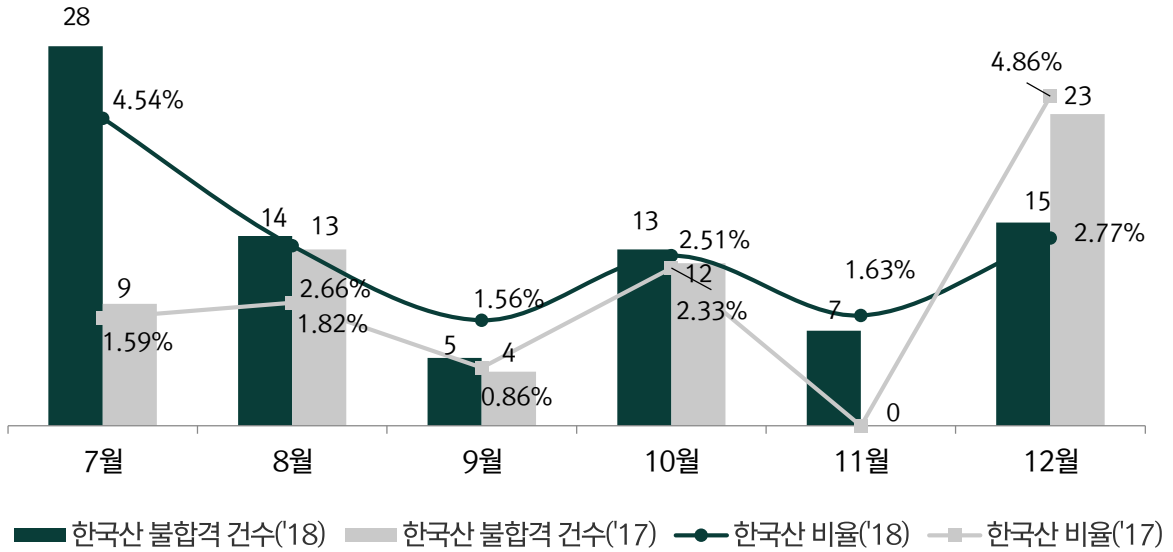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전체 불합격 건수			
	연도		증감률(B/A)		연도		증감률(B/A)	
	'17년(A)	'18년(B)	건수	비율(%)	'17년(A)	'18년(B)	건수	비율(%)
7월	3	5	▲2	166.7	67	70	▲3	104.5
8월	2	2	-	100.0	96	57	▼39	59.4
9월	1	0	▼1	-	56	29	▼27	51.8
10월	5	3	▼2	60.0	66	73	▲7	110.6
11월	1	2	▲1	200.0	73	45	▼28	61.6
12월	3	1	▼2	33.3	74	58	▼16	78.4
합계	15	13	▼2	86.7	432	332	▼100	76.9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3.3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 분석 - 미국

3.3.1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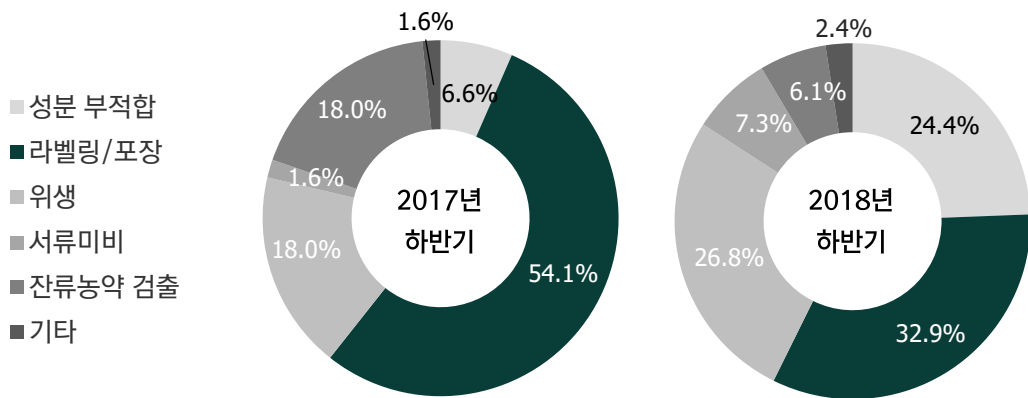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전체 불합격 건수			
	연도		증감률(B/A)		연도		증감률(B/A)	
	'17년(A)	'18년(B)	건수	비율(%)	'17년(A)	'18년(B)	건수	비율(%)
7월	9	28	▲19	311.1	566	617	▲51	109.0
8월	13	14	▲1	107.7	716	527	▼189	73.6
9월	4	5	▲1	125.0	466	321	▼145	68.9
10월	12	13	▲1	108.3	516	518	▲2	100.4
11월	0	7	▲7	-	389	430	▲41	110.5
12월	23	15	▼8	65.2	473	541	▲68	114.4
합계	61	82	▲21	134.4	3,126	2,954	▼172	94.5

출처: 미국 FDA

3.3.2 2017~18년 하반기 미국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유별 분류



(단위: 건)

거부 사유	2017년 하반기	2018년 하반기	증감률
성분 부적합	4	20	400.0%
라벨링/포장	33	27	-18.2%
위생	11	22	100.0%
서류미비	1	6	500.0%
잔류농약 검출	11	5	-54.5%
기타	1	2	100.0%
합계	61	82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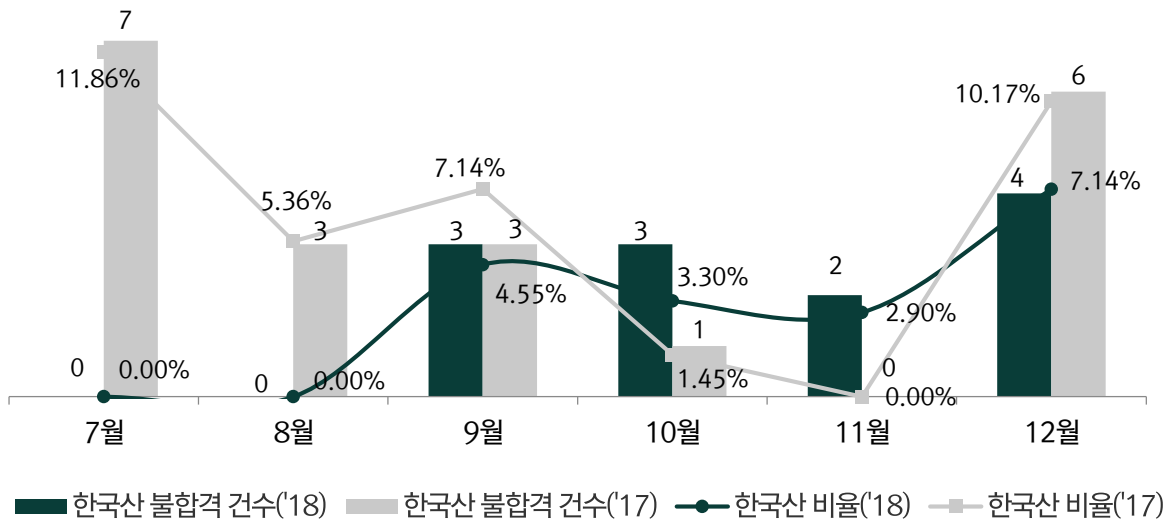
출처: 미국 FDA

- 2018년 하반기 미국의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하였음. 거부사유별로 성분 부적합, 위생, 서류미비가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반면, 라벨링/포장, 잔류농약 검출은 크게 감소함
 - (라벨링/포장) 2018년 하반기 라벨링/포장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한 27건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건수의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라벨링/포장 사유 중 필수 라벨 정보를 영어로 미표기,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을 미표기한 것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높았음. 이외에 영양소 정보 미표기, 수량 미표기, 수출업자 정보 미표기 등 다양한 사유로 통관거부되었음
 - (성분 부적합) 2018년 하반기 성분 부적합 건수는 20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제품에 유해 색소가 함유되어 있었음
 - (수출 시 유의사항) 2017년 하반기는 라벨링/포장 비중이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2018년 하반기는 라벨링/포장, 위생, 성분 부적합 사유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라벨링 뿐만 아니라 위생, 성분 규격에도 유의해야 함

3.4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 분석 - 대만

3.4.1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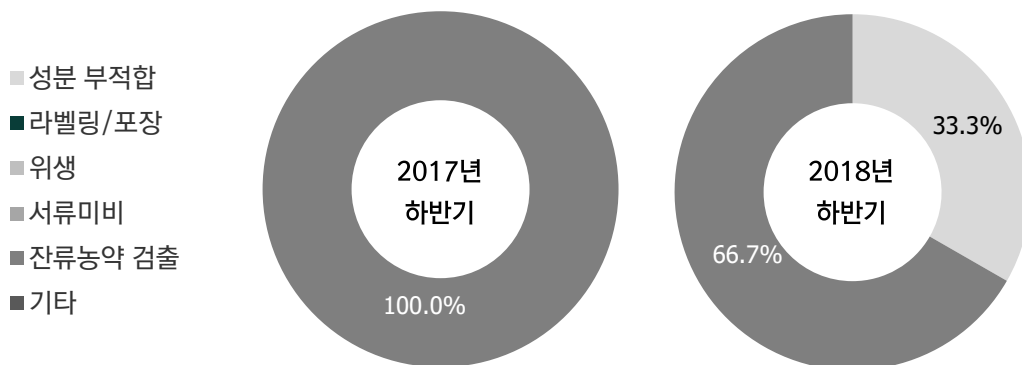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전체 불합격 건수			
	연도		증감률(B/A)		연도		증감률(B/A)	
	'17년(A)	'18년(B)	건수	비율(%)	'17년(A)	'18년(B)	건수	비율(%)
7월	7	0	▼7	-	59	62	▲3	105.1
8월	3	0	▼3	-	56	53	▼3	94.6
9월	3	3	-	100.0	42	66	▲24	157.1
10월	1	3	▲2	300.0	69	91	▲22	131.9
11월	0	2	▲2	-	38	69	▲31	181.6
12월	6	4	▼2	66.7	59	56	▼3	94.9
합계	20	12	▼8	60.0	323	397	▲74	122.9

출처: 대만 FDA

3.4.2 2017~18년 하반기 대만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유별 분류



(단위: 건)

거부 사유	2017년 하반기	2018년 하반기	증감률
성분 부적합	0	4	-
라벨링/포장	0	0	-
위생	0	0	-
서류미비	0	0	-
잔류농약 검출	20	8	-60.0%
기타	0	0	-
합계	20	12	-40.0%

출처: 대만 F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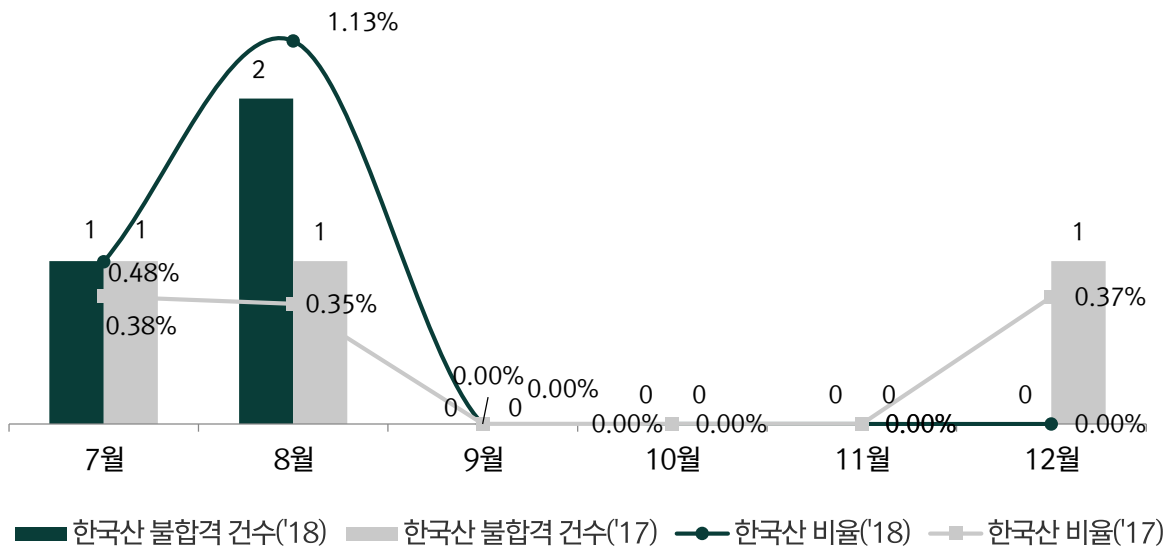
- 2018년 하반기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 감소하였으며 12건은 잔류농약 검출, 4건은 성분 부적합이 사유였음. 잔류농약 검출은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0.0% 감소하였음**
 - (잔류농약 검출) 2017~18년 하반기 모두 잔류농약 검출이 거부 사유 1위를 차지함. 잔류농약은 채소류, 과실류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의 농약이 검출되었음
 - (성분 부적합) 2018년 하반기 성분 부적합은 총 4건으로 2017년 하반기에는 1건도 집계되지 않음. 성분 부적합은 감미료인 사카린과 방부제인 파라벤(Paraben), 에틸 파라-히드록시 벤조에이트(Ethyl p-hydroxybenzoate)가 검출되었음
 - (수출 시 유의사항) 대만 잔류농약 기준은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성분 규격은 제 18조에 명시되어 있음. 잔류농약은 대만에서 꾸준히 거부 사유 1위를 차지하는 만큼 농약별 기준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방부제, 감미료 등 성분 수치에도 유의해야 함

3.5 국가별 통관거부 동향 분석 - EU



3.5.1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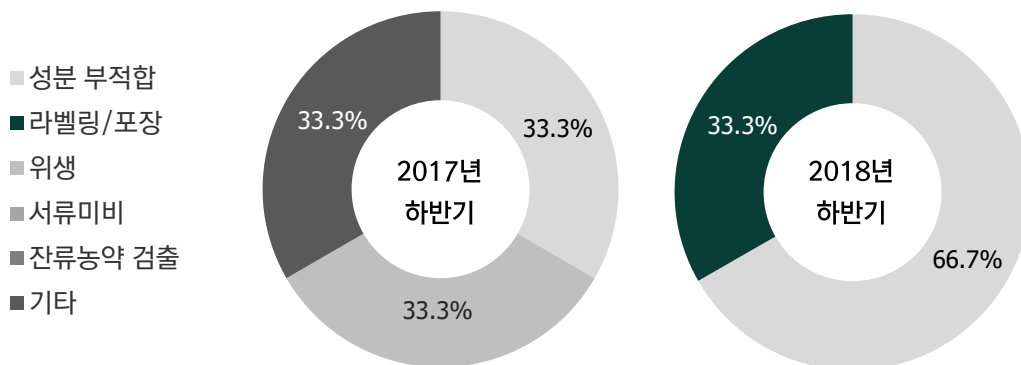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전체 불합격 건수			
	연도		증감률(B/A)		연도		증감률(B/A)	
	'17년(A)	'18년(B)	건수	비율(%)	'17년(A)	'18년(B)	건수	비율(%)
7월	1	1	-	100.0	266	209	▼57	78.6
8월	1	2	▲1	200.0	282	177	▼105	62.8
9월	0	0	-	-	322	136	▼186	42.2
10월	0	0	-	-	339	196	▼143	57.8
11월	0	0	-	-	383	196	▼187	51.2
12월	1	0	▼1	-	267	163	▼104	61.0
합계	3	3	-	100.0	1,859	1,077	▼782	57.9

출처: EU RASFF

3.5.2 2017~18년 하반기 EU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유별 분류



(단위: 건)

거부 사유	2017년 하반기	2018년 하반기	증감률
성분 부적합	1	2	100.0%
라벨링/포장	0	1	-
위생	1	0	-100.0%
서류미비	0	0	-
잔류농약 검출	0	0	-
기타	1	0	-100.0%
합계	3	3	-

출처: EU RASFF

■ 2018년 하반기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3건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세부 사유별로 성분 부적합 2건, 라벨링/포장 1건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2017년 하반기는 성분 부적합, 위생, 기타가 각각 1건씩 나타남

- (성분 부적합) 2018년 하반기 성분 부적합은 총 2건으로 미허가 색소인 타트라진(Tartrazine)과 요오드(Iodine) 성분이 검출되었음. 2017년 하반기에도 해조류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음
- (라벨링/포장) 2018년 하반기 라벨링/포장 건수는 총 1건으로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항원인 우유를 미 표기하였음
- (수출 시 유의사항) 2017~18년 하반기 모두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요오드가 검출되고 있음. 그러나 해조류에 대한 요오드의 기준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지속적으로 요오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성인 1일 요오드 섭취량은 600 μ g/day, 1~3세 영유아는 200 μ g/day으로 제한하고 있음. 요오드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요오드 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Food Import Refus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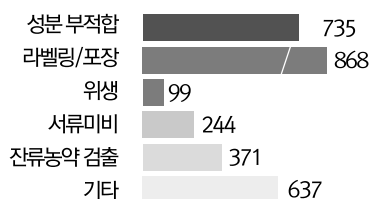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4.1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2018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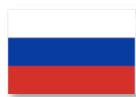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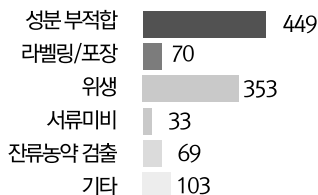
미국

총 2,95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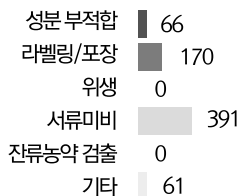
EU

총 1,07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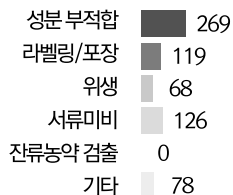
러시아

총 688건



중국

총 660건



대만

총 397건



일본

총 332건



호주

총 175건



캐나다

총 21건



Food Import Refus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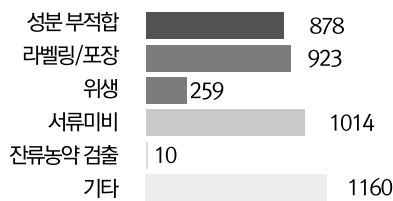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4.2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2017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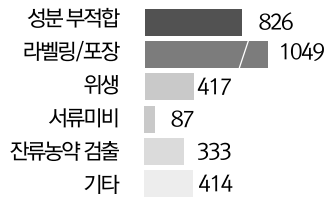
중국

총 4,24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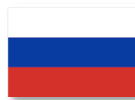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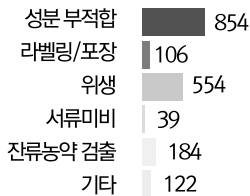
미국

총 3,126건



EU

총 1,85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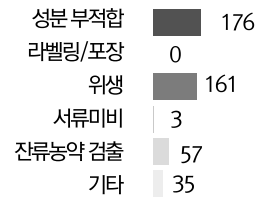
러시아

총 462건



일본

총 43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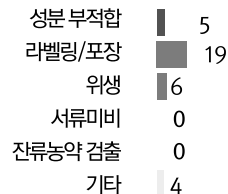
대만

총 323건



호주

총 34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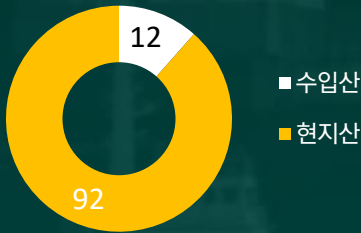
호주

한국산 0건 / 총 104건

(‘18.12월 2건)

2018년 하반기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¹⁾ 건수는 총 104건으로 수입산 12건, 현지산 9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52건 중 31건은 제품에서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21건은 금속, 유리, 플라스틱 조각 등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음. 2위는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43건 중 38건은 알레르기 유발 향원 미표기, 유통기한 미표기, 성분 오기 등의 사유로 리콜되었음. 제품별로는 과자류 15건, 채소류 13건, 낙농품 12건으로 집계되었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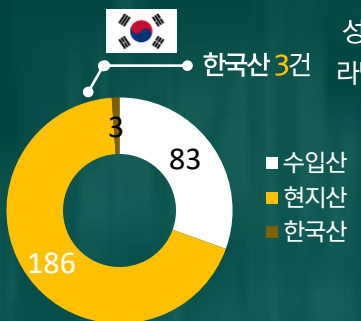
캐나다

한국산 3건 / 총 272건

(‘18.12월 20건)

2018년 하반기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72건으로 수입산 86건, 현지산 186건으로 집계됨. 이 중 한국산 리콜은 3건임. 리콜 사유로는 3건 모두 라벨에 우유, 계란 등 식품 알레르기 유발 향원을 미표기함. 제품별로는 면류 2건, 음료 1건으로 조사됨. 한편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전체 건수의 89%가 대장균, 곰팡이,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21%는 금속, 플라스틱, 유리 조각 등 이물질이 발견됨. 제품별로는 채소류 42건, 과실류 36건, 과자류 34건, 기타 조제 농산품 33건 순으로 나타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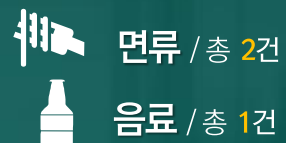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 사례를 의미함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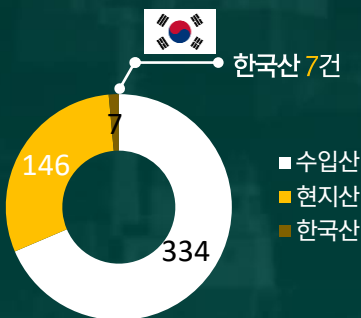
EU

한국산 7건 / 총 48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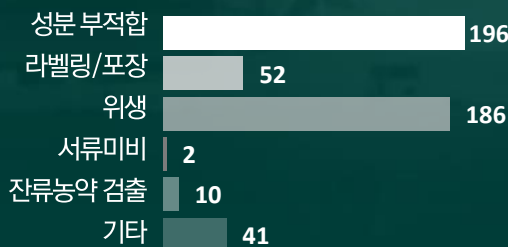
(‘18.12월 8건)

2018년 하반기동안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487건으로 수입산 341건, 현지산 146건인 것으로 조사됨. 이 중 한국산 리콜은 7건으로 집계됨. 리콜 사유 1위는 성분 부적합 문제로 미역, 김을 포함한 해조류 6건에서 요오드가 과다 검출되었음. 나머지 1건은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버섯류임.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성분 부적합으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카드뮴, 미허가 색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 2위는 위생으로 제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금속, 유리 조각 등이 발견됨. 제품별로는 기타 조제 농산품 51건, 과실류 44건, 어류 42건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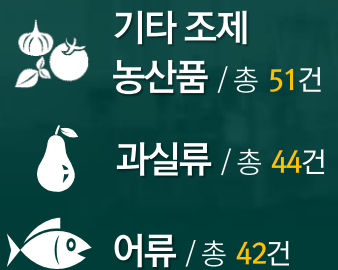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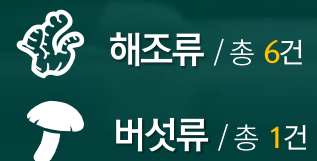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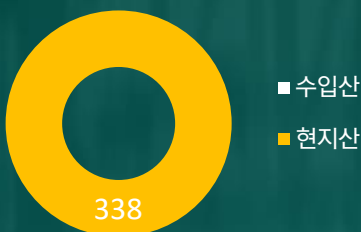
일본

한국산 0건 / 총 338건

(‘18.12월 0건)

2018년 하반기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338건으로 모두 현지산이었고, 한국산은 발견되지 않음.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기타 문제로 유통기한 잘못 표기, 제품 부패, 식품 위생법 위반, 이취 발생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2위는 라벨링 및 포장으로 94건 중 51건은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미표기하였으며, 이 외에도 일본어 미표기, 저장 방법 기재 누락 등 다양한 사유로 리콜되었음. 제품별로는 과자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 47건, 소스류 31건 순으로 조사되었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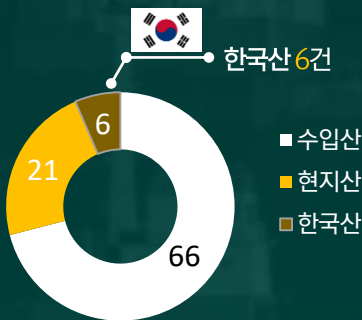
필리핀

한국산 6건 / 총 93건

(‘18.12월 14건)

2018년 하반기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93건으로 현지산 21건, 수입산 72건으로 이 중 한국산 리콜은 6건으로 조사되었음. 사유는 기타 문제로 제품 등록 절차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제품은 과자류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면류, 해조류, 음료가 각각 1건씩 집계됨. 한국산을 제외한 수입산 리콜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음. 전체 리콜 사유 역시 모두 기타 문제로 제품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였음. 제품별로는 과자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조제 농산품이 13건으로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93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과자류 / 총 23건

기타 조제 농산품 / 총 13건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6

< 한국산 리콜 제품별 현황 >

과자류 / 총 3건



홍콩

한국산 0건 / 총 17건

(‘18.12월 2건)

2018년 하반기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7건으로 모두 수입산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각 제품에서 간균,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큰 생선뼈가 발견되었음. 2위는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라벨에 제조 공장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영양 표시 불합격 처리 받아 리콜되었음. 제품별로는 채소류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3건, 낙농품 3건이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성분 부적합 2
라벨링/포장 6
위생 9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채소류 / 총 7건

과자류 / 총 3건

낙농품 / 총 3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싱가포르 한국산 0건 / 총 7건
('18.12월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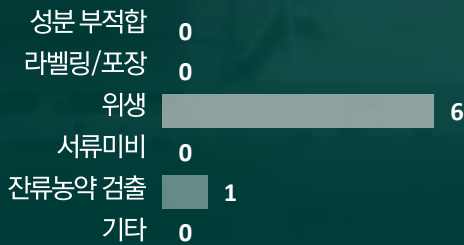
2018년 하반기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7건으로 모두 수입산이며 말레이시아 3건, 헝가리 2건, 일본 1건, 미국 1건으로 다양하게 집계됨. 리콜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곰팡이,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이 발견되었음. 2위는 잔류농약 검출로 상추에서 높은 수치의 농약 성분이 발견됨. 제품별로는 채소류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 음료, 기타 조제 농산품, 빵류제조용에서 각각 1건씩 나타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수입산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채소류 / 총 3건